로컬플러스

## 군산소방서, 어린이소방체험 실시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소방안전체험교실'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소방안전체험교실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 안전을 익히고 배워 안전의식을 습관화 시키고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119이동안전체험차량'은 화재를 가상한 연기 속에서 피난훈련,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방재시설운용기준' 발간

군산시가 재난관리업무 과학화를 위한 방재시설물 운용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홍수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2년 8월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시는 홍수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나운1우수저류조 등 5개의 방재시설을 신설하고 이 시설을 통합 관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표준매뉴얼인 '방재시설운영기준'과 50년간의 군산지역 기상관측기록을 수집·분석한 '군산기상관측총람'을 발간했다.

방재시설운영기준은 홍수재해 발생 시 각 시설의 운영기준과 시설 유지보수 지침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따른 재난 양상을 분석해 작성된 자료로서 누구든지 능동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소방서 재난발생 대비 훈련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화재진압 및 다수사상자 구급훈련,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익산시보건소, 익산경찰서 등 총 121명 21대의 장비가 동원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출동체계 및 긴급구조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상태 점검을 통하여 유사시 통제단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메시지(119신고)를 통해 상황을 부여하고 사고 초기 현장대응, 현장지휘소 설치,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운영등 표준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며 긴급구조기관 동원 및 임무부여와 협업체계도 점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 옥구 전원마을단지 분양완료

## 테마음식·숙박단지 주택 용지로 용도변경 효과 거둬

군산 옥구테마음식 및 숙박단지가 잡초밭 신세로 전락할 뻔 했으나 사업 전환을 통해 전원마을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구테마음식 및 숙박단지를 전원마을단지로 용도변경을 한 후 100% 분양이 완료돼 현재 주택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돼 옥구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50억원의 사업비(국비·지방비 50%씩)가 투입된 사업으로 어은리 군산골프장 인근에 2만 2000여㎡(6600여 평)의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곳은 당초 테마음식 및 숙박 단지로 추진됐으나 평당 최고 67만원에 달하는 분양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분양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시는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양용도 변경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지난 2014년 12월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음식 17필지, 숙박 3필지 총 20필지로 분양하려던 것을 정면 8필지는 음식 또는 주택으로 후면 12필지는 주택 용지로 변경했다.

시는 단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행 및 분양 가격 재산정을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접수와 계약을 시작했고 지난해 말 분양을 완료했다.

군산시는 분양 대금을 옥구읍에 재투자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했던 옥구소도읍육성사업이 용도변경 등 전환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지역민과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해경, 동식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 생태계 보전 도서지역 황경도 등 12곳 무단 반출 행위 제한

해양경찰이 특정도서에서 동식물(바다 포함) 채취 행위 근절에 나섰다.

1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특정도서지역에 무단출입 해양영 또는 취사행위와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特定島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야생동식물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반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군산은 횡경도, 소횡경도, 보농도, 십이동파도 등 부안은 외치도, 내조도 등 총 12곳이 특정도서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개인 레저보트 보급 확대로 낚시꾼들의 특정도서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낚시객 김모씨 등 4명이 십이동파도 4번섬에서 홍합을 채취·반출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6명의 관광객이 특정도서로 지정된 십이동파도 2번섬에서 입도해 홍합을 채취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이곳에서는 홍합을 채취하다 낚시객 1명이 바다로 실족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특정도서내의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상습·조직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특정도서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야생동식물 또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 분양

군산시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택지(상업용지 6, 단독주택용지 49, 총 55필지)를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분양대상 지역의 용도는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이다.

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이하에 용적률 600% 이하로 최저층수 2층이며, 단독주택은 건폐율 60% 이하에 용적률 200% 이하로 최고층수는 3층(필로티 구조시 4층까지 허용)이다.

분양대금은 일시납부와 6개월 3회 분할납부 방법이며, 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약대상 토지에 대해 금융권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택지 분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시업과(☎063-454-365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원룸이 아닌 쾌적하고 친화적인 고품격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변 3km이내 중·고등학교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예술의전당, 터미널, IC가 위치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차별화된 택지조성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철새조망대 수리부엉이 탄생 눈앞

군산철새조망대가 지난 겨울 미어캣 새끼 탄생 이후 새 봄을 맞아 또 하나의 가족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철새조망대관계자는 수리부엉이가 산란에 성공해 포란을 시도하고 있으며 빠르면 4월초 새끼 부엉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철새조망대는 그동안 몇차례 수리부엉이 인공부화를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부화에 성공한 적이 없어 이번에는 어미의 품에서 포란을 시도해 부화 후 인공포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민해진 수리부엉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람객에게 관람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어미 수리부엉이가 포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황병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부엉이 가족과 맹금류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맹금류 사육장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며 "금강철새조망대가 어린이 생태체험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원광대 의대 학부모회 등 발전기금 기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의과대학 학부모회와 배드민턴 졸업생 모임(원우회)에서 대학 발전기금으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잇달아 기탁했다.

지난 16일 대학을 방문해 김도종 총장에게 직접 기금을 전달한 의과대학 학부모회(회장 김희순)는 지난 2013년 발족해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년에도 강의동 건축기금으로 6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회원들의 뜻을 모아 발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원광대 배드민턴 졸업생 모임인 원우회(회장 김문수 / 체육교육 82학번)는 회원들의 회비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배드민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16일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한편, 두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한 김도종 총장은 "대학 사랑을 위한 여러분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뜻에 힘입어 대학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김민근기자

## 익산시, 고도지구 가로변 경관 기본설계 용역 착수

익산시가 고도지구 내 가로변 경관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며 백제 고도(古都)로서 한발 더 내딛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금마면 고도지구 내 고도길, 금마길, 미륵사지로 1길에 고도 백제를 바탕으로 한 거리 및 가로변 외관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백제를 대표할 만한 유물·유적의 이미지를 조성해 공간의 정체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로변 건축물 입면과 간판 등 가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디자인을 개발하고, 보행환경개선 디자인 제시(보행로, 안내표지, 가로등, 쉼터 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고도지구 내 가로변 상가들이 가로변 외관정비 신청 시 가로변에 대한 구체적 디자인을 제공하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고도지구 내 가로변 외관을 정비할 경우 총공사비의 2/3까지 무상지원 사업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